

## 이로에 썩 향로

수평을 형상화한 이 향로는 미술관 소장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. 작가는 17세기 교야키를 대성한 도예가로 잘 알려져 있는 노노무라 닌세이입니다. 닌세이의 수많은 명작 중에서도 이 썩 향로는 특별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아 1951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.

이 썩 향로에는 곳곳에 닌세이의 뛰어난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. 그 중 한 예가 긴 꼬리입니다. 이 형상에서는 점토가 무게로 인해 아래로 처지거나 굽는 과정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어 길고 수평한 꼬리를 재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기술입니다. 꼬리 안쪽에는 닌세이가 도기를 구울 때 꼬리를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마 안에서 지지대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2개 있습니다. 완성된 썩의 모습에서는 긴장감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

선명한 깃털과 마치 살아 있는 듯한 눈은 이로에 기법의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로에는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에 색유로 밑그림을 그리고, 다시 재별구이하어 유약을 정착시키는 기법입니다. 썩의 깃털은 한 장 한 장 초록색, 파란색, 갈색으로 정교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. 곳곳에 검은색으로 채워진 부분이 있으며, 금색 선으로 윤곽이 그려져 있습니다.

닌세이의 작품 중에는 순수하게 감상을 위한 명작도 있지만, 이 썩 향로는 뚜껑 안쪽 통기구 주변이 향을 피운 연기로 인해 변색된 흔적이 있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